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
‘연화회’와 ‘현대불교신문’이 함께 합니다.



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



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‘현대불교신문’
- 행장 및 업적 정리, 보도자료 생산, 부고
- 추모 리플렛, 호외 발행, 언론사 응대 등
- 영결·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

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.
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.

상담문의 010-4727-6065